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솔라시도)의 구성지구 개발사업이 착공에 들어갔다. 사진은 관광레저도시 조성을 앞둔 영암방조제 일대 현장.

# ‘뻔뻔 이사’들 민립대학 위상 먹칠 그만

## 2013 이슈 진단

## 4 조선대이사회 파행

2013년 광주·전남지역 대학가의 최고 뉴스는 단연 조선대 이사회의 파행 운영이다. 이사 전원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이사진을 구성하지 않은 이사부존재 상태가 1년가량 장기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사들은 수차례 회의와 논의

우선적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지난 9월30일 일반이사를 뽑으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일부 이사가 법원에 선임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사태는 본격화됐다. 여기에 조선대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등 학내 각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민주이사추천위원회 등이 개방이

지만 행정적으로나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사퇴할 수 없으며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법원의 판결 이후 교육부가 지난 2일 조선대 이사회 사태에 대한 강경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조선대 상황을 ‘이사 부존재’ 상태로 규정하고, 조속히 이사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임시이사를

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임시이사를 파견할 예정이라는 점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1년 가까이 스스로 차기 이사진을 구성하지 않다가 법원의 결정과 교육부의 경고로 못이겨 후임 이사들을 선임해야 하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오는 23일 개방이사를 포함한 차기 이사진 선임을 논의할 조선대 이사회에 학교 구성원과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개방이사 등 구성 안해 유례없는 이사 부존재 사태 ‘혼란’ 정시모집·취업 시기… 사심 버리고 대학 미래위한 선택을

를 거쳤지만 차기 이사진을 뽑지 않아 이사 연임 욕심 탓에 대학을 망치고 있다는 학내외의 거센 반발과 비난을 샀다. 교육부도 임기만료 이사들이 대학을 운영하는 조선대와 같은 경우는 선례가 없어 대책 마련에 혼선을 빚었다. 또 법원의 판결이 난 후에도 조속한 차기 이사진 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불이행시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압박책을 내놓았다.

조선대 이사회 사태는 이사들이 정관에 따라 결원된 이사(1명) 선임시, 사가 아닌 일반이사의 선임 절차를 촉구하는 대외 홍보활동과 집회를 열면서 조선대 이사회 사태는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까지 파장을 몰고 왔다. 결국 지난달 28일 광주지방법원이 개방이사 선임이 잘못됐다며 선임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선임이사(일반이사)로 이정남 조선대 총동창회장이 선임된 이후, 총동창회는 이 총동창회장이 개방이사가 아닌 일반이사로 선임됐

파견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경고했다. 또 결원이사 몫으로 뽑힌 선임이사인 조선대 총동창회장의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만큼 이번 결원이사 선임에서 제외하고, 본안소송 결과 이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조선대 이사회에 개방이사 3명을 포함한 8명의 이사 선임을 촉구한 것이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이사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후임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데도 현재까지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어 학교법

조선대 관계자는 “조선대는 호남 거점 사립대이자 지역민의 손으로 세운 민립대학이라는 영예로운 위치를 점하고 있다”면서 “대학발전에 별다른 기여도가 없는 이사들이 조선대의 명예에 먹칠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조선대는 호남 거점 사립대이자 지역민의 손으로 세운 민립대학이라는 영예로운 위치를 점하고 있다”면서 “대학발전에 별다른 기여도가 없는 이사들이 조선대의 명예에 먹칠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조선대는 호남 거점 사립대이자 지역민의 손으로 세운 민립대학이라는 영예로운 위치를 점하고 있다”면서 “대학발전에 별다른 기여도가 없는 이사들이 조선대의 명예에 먹칠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J프로젝트’ 구성지구 개발 어떻게

# 의료·휴양... 해양 레저도시 전남의 관광지도를 바꾼다

## 상주인구 1만8300명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솔라시도) 개발사업은 낙후된 전남 서부권에 대규모 관광시설을 건설하는 전남도 최대 역점 사업이다. 1455만평(48.1km)의 부지에 F1 경주장, 의료·건강·휴양타운, 골프장 등을 건설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 10여 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J프로젝트는 구성·삼호·삼포지구로 나뉘어 개발되는데 13일 기공식을 여는 구성지구에는 18홀 기준 골프장 7개가 들어서는 등 해양관광 레저도시로 조성된다. 한마디로 구성지구 개발은 전남의 관광 지도를 바꾸는 사업이다. 구성지구는 1·2단계로 나뉘어 사업비 1조1037억원의 투입해 2025년까지 토지매입과 진입도로 건설 등 도시 기반시설 조성 및 함께 골프장 건설, 레저주택, 골프빌라, 시니어 빌리지를 조성한다.

호텔 및 리조트, 통합의학병원, 휴양 숙박시설 등도 건립한다. 남도의 먹거리리를 판매하는 남도음식문화촌과 컨벤션센터, 워터파크, 마리나 시설, 승마장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공문화·교육시설, 터미널, 행정타운, 씨네타운, 바이오에너지파크, 그린생활시설, 공원 등의 편의·생활시설 등도 자리 잡게 된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구성지구



일대는 1만8300여명(7320가구)이 상주하는 친환경 해양관광 레저도시로 거듭난다.

지난 2010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승인·신청됐고, 지난해 11월 간척지 매입을 완료해 지난 2월부터 부지 성토에 돌입하는 등 J프로젝트 3지구 중 유일하게 공사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보성건설이 59.9%, 한양건설 16.8%, 전남도와 개발공사가 각 10% 참여하고 있다. 업체 측은 기공식에 앞서 사전 공사에 들어가 물막이 공사와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을 시행, 전체 공정 5%가량의 이행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구성지구 등 J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전남을 동북아시아 관광 거점 지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바다를 끼고 있고, 다도해가 가깝다는 점 때문에 중국 내륙 관광객을 대거 유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도 많다.

한편 지난 2003년 프로젝트 구상 및 검토작업이 시작된 J프로젝트는 최근 ‘솔라시도’(SolaSeaDo)라는 브랜드로 개발되고 있다. 솔라시도는 ‘태양’(Solar), ‘바다’(Sea), ‘호수’(Lake)를 의미하며 복합 휴양·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상징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J프로젝트’ 다른 지구 개발은...

# 삼호지구 -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승인·개발사업 착공 삼포지구 - F1경주장 준공... 2단계 개발 업체 물색 중 송천지구·초송지구·부동지구 개발 중단 사업계획 취소

영암·해남 일대를 개발하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일명 J프로젝트)는 원래 6개 지구로 나뉘어 추진됐지만 송천지구와 초송지구에서 이어 부동지구까지 개발이 중단되면서 사업 구상 10년 만에 계획의 절반이 취소된 상태다. 현재는 구성지구를 포함해 삼호지구, 삼포지구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삼호지구는 영암군 삼호읍 일대 866만1000㎡(262만평)에 18홀 기준 F1 경주장 4.5개(81홀·321만1000㎡) 및 대규모 스포츠·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와 SPC 서남해안레저간 팜랜드 조성공사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 양도·양

수 협약 수정을 협의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남도는 올해 안에 간척지 감정평가 마치고 간척지 부지 양도·양수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승인 및 개발사업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영암군 삼호읍 일대 430만㎡(130만평)에 F1 경주장을 비롯해 1만명이 상주할 수 있는 복합레저스포츠도시를 조성하는 삼포지구도 1단계(F1경주장)는 준공했지만 다른 부지의 개발이 더디다.

현재 2단계 개발을 맡을 사업주간의사를 선정하지 못해 지난 5월 관련 용역을 중단했고, 업체를 물색 중이다.

그동안 삼포지구는 중국 업체로부터 15억 달러 투자 유치를 협약하기도 했지만 실제 투자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사업참여 투자자를 계속 찾고, 여의치않을 경우에는 전남개발공사를 주사업자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민간자본이 30% 이상 참여해야 상주할 수 있는 복합레저스포츠도시를 조성하는 삼포지구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J프로젝트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생산유발 22조1689억원, 고용유발 22만7435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3년에도 쌍용자동차를 성원해 주신 모든 고객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진정한 프레스티지 세단은 4-Tronic으로 완성됩니다  
국내 최초 4륜구동 대형세단, 체어맨W 4-Tronic

The Original 4WD Sedan

본 정원은 2013년 11월 21일, 월리힐리파크 스키장 솔로프에서 실제 촬영된 주행 이미지입니다. 4륜구동 및 쌍용자동차의 스키 솔로프 주행 영상은 확인하세요! www.facebook.com/SsangyongStory

Flower Art in Gallery  
\*산형암 및 자연 148은 전화 070-669-4914 / 쌍용자동차 이벤트페이지(www.ssangyong.co.kr) 참조  
\*월시 및 장소: 12/11(수) 가나아트센터 \*모집기간: 12/6(금) 까지 \*응모대상: 2013년 11월 30일 이전 출고고객에 한함 \*당첨자 발표: 12/9(일)

TAKE 4-TRONIC 캠페인 12월에도 당신의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해!  
① Free 4-Tronic(4WD 무장 제어) ② 개별소비세 100만원 지원 ③ 최고급 호텔 숙박권 증정(가파도리조트, 신안유주/53%, 791/06-72788)

대한민국 CEO CHAIRMAN

구입문의  
| 광주권 | 광주중앙 529-0003 · 서광주 383-3434 · 광주광산 952-3330 · 북광주 971-0990 · 광주중앙 655-4001 · 동광주 515-1900  
| 전남권 | 순천 745-3666 · 순천중앙 723-7100 · 신여수 654-5522 · 목포중앙 277-8000 · 무안 454-0099 · 화순 371-3555 · 장흥 863-2600  
나주 334-2727 · 강진 433-3100 · 해남 537-3100 · 담양 383-5811 · 장성 395-0007 · 원도 554-4545 · 영광 353-9500 · 고흥 835-5050  
여천 685-4800 · 보성 852-2892 · 광양 761-8900 · 동광양 791-0071

■ 쌍용자동차와 미래를 함께 할 쌍용가족을 모집합니다  
- 판매수수료+인센티브+정착지원금 - 매월 판촉활동 지원금 추가지급 - 판매 우수자 해외모터쇼 참가 - [공고/접수] www.smotorecruit.co.kr